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세계관에서 본 종교의 현실

생태위기... 욕망 내려놓는 기도 절실

자신 믿는 사람 기도만 들어주나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다가 허정무 선수가 찬 공이 일본의 골대에 들어가 골인을 한다. 허정무선수는 잔디구장에서 무릎을 꿇고 미끄러지며 하늘을 향해 두손을 모아 기도를 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 감사의 기도 세례며 나는 지금도 종종보지만 차범근씨를 비롯하여 여러 선수들이 과거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유명 축구선수의 기도 세례모니와 한 사찰에서 기도를 하는 신도들.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욕망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다.

아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는 것같고, 선수 자신도 이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저렇게 하면 오히려 세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뿐 아니라, 오히려 품위없는 종교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모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대신 죽게 만든 분이데, 자기를 믿고 기도한다고 이기게 해주고, 믿지 않는다고 들어갈 것도 안들어가게 하여 패배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과는 반대되는 신, 너무 조잔한 신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하나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때려주고 싶은 것은 나 같은 중생의 수준인데,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내 수준이라면 그런 신은 별로 믿을 필요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자기를 믿으며 기도한다고 한 쪽 편을 이기게하고 다른편은 죽게하는 부처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교도)은 안들어주는 '알라' 라면 이미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신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나 이슬람인만의 하나님, 알라이지 모든 인간과 만중생의 신은 아닌 것이다. 나를 믿는다고 하늘로 올라가 휴거되고,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수준이면 너무도 옹졸하지 않겠는가. 만일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러한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다지 거북하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처님과 하나님이 결코 그럴리 없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이나 알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만든 것이다.

뜻대로 안되야 좋은 세상이 된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진다면 과연 정말 좋은 세상이 될까? 모든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엉망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어 미국과 같은 경제수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위해 엄청난 자원을 파

기도 다 이뤄지면, 환경위기 초래  
이기적 탐욕심이 인류멸망 불러  
잘먹고 잘살게 하는데 종교 동원  
"가르침대로 소욕지족의 삶 살자"

헤쳐 결국 환경위기를 초래하여 지구는 결판이 나고 인류를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기도한다고 골대에 공을 넣어 우리편만 이기게 해주는 알라신, 기도한다고 나만 시험에 붙게해주는 부처님, 나만 특별히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승진시켜주는 하나님, 나만 잘먹고 잘살게 부처되게 해주는 비취신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탐욕이 창조한 신이지 진정한 신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독일철학자 포이에르바하가 '신학은 결국 인간학'이라고 말한 이유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공포심이 신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경쟁사회에서의 성공은 결국 누군가의 실패위에 쌓아놓은 것을 의미한다. 내가 대학에 붙으려면 한정된 정원으로 누군가 떨어져야 한다.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군가를 떨어지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누군가는 승진에서 탈락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축구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말은 상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욕망을 담은 이기적인 기도를 정말 들어주는 신이라면 과연 좋은 신일까? 이런 기도가 '실제 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런 신은 '위험한 신, 심각하게 잘못된 신'인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자연법칙을 거꾸로 돌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는 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를 손해를 끼치게 해달라는 탐욕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다면 믿어서는 안되고, 사랑의 신도 아니며 신봉해서는 안 되는 불온한 신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큰일이 난다. 어쩌면 세상은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내뽕대로 안되기 때문에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는 하나, 오직 '돈'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가 탐욕에 지배를 받을 때 이들 종교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이다. 오로지 '돈'이라는 하나의 종교를 숭배하는 다른 버전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보시하고 헌금을 하면서 말한다. "믿습시다.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헌금을 많이 할

테니, 승진하도록, 대학에 붙도록, 축구에 이기도록, 사업에 성공하도록, 자기 삶에 이익이 될 결혼상대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부처님은 일종의 복덕방의 거간꾼 역할을 요구한다. 신이나 부처님, 하나님에게 말 좀 잘해서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이며, 헌금을 많이 할테니 승진하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때 헌금과 보시는 일종의 복제이며 투기, 투자인 것이다. 10만원주면서 100만원 벌게 해달라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베짚고 나누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달라'는 종교는 산업사회의 확대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전세계 12위권의 풍요를 누리는 나라이다. 60·70년대 미국영화를 보고난 뒤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부러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인이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본적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2000년 초 긴급구호와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위해 4년간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가난한 아이들을 협력할 때 그곳 어린이들이 나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 자기 아버지가 왜 나같은 한국인이 아닐까하는 부러움이.

이렇게 보면 풍요로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있

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그저 감사할일 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과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감동시켜 실제 기도를 들어주게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고 계속달라는 사람은 '너무도 알미운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고 싶은 마음도 안생길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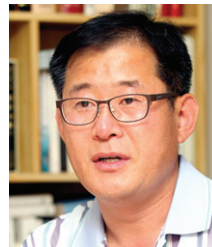
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실제 우상은 '돈'이다. 격조와 품위가 있게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종교로 집약되어 잘먹고 잘살게 하는일에 종교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부자가 되려고 온다. 끊임없이 버리고 버려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지만 어리석은 불자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과 욕망의 이기심으로 오히려 가르침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 과도하게 누려, 소비

수준을 줄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결국 소욕지족의 삶, 자발적인 청빈, 주체적인 가난의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생태위기에 대한 실천은 결국 종교의 근본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호(Signal)이다. 깨달음과 종교차원에서 오늘날의 환경위기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살도록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며, 과거에는 한두명의 깨달은 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류전체가 성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깨달음의 메시지인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자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며 산업사회의 쪼든 욕망을 돌아보고 내려놓으며, 나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기도, 무소유의 가난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고 약속의 기도, 내가 수많은 인간과 만중생의 보살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서원의 기도, 타인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겠다는 열망을 모으는 기도. 이제 이러한 기도를 아하지 않 유정길(에코붓다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을가...



유정길(에코붓다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목각 단청 윤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정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티벳 만다라 그림 (크기별 3종류)



티벳 스님들이 직접 그린 만다라



16나한상 (높이 30cm)



원목 영가 사진틀 위해



원목 부처님 좌대 (2자 반 기준)



고전 상자

전화: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A/S 불룩 전선 10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채르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그리움)

연등규격: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방) LED전구, DC 3V 탁재·노랑·빨강

빙생, 탐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